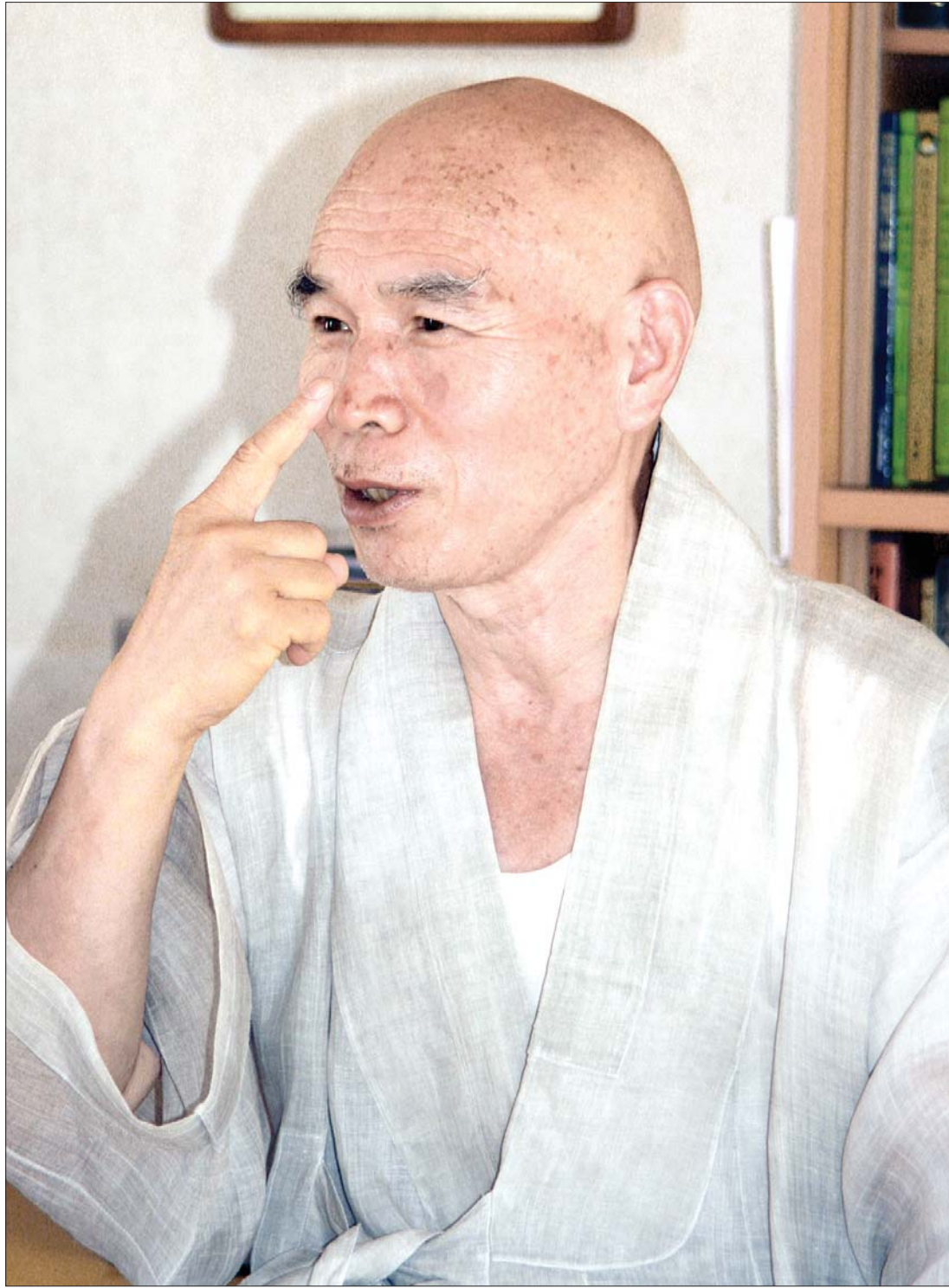


꿈인 줄 알고 깨어나려고 애써야 꿈을 깬다

칠불사 회주
통광 스님 **통광**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린 늦여름. 흙빛을 띤 지리산 삼진강의 강변도로를 따라 가다가 하동 화계장터에서 쌍계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유명한 '십리 뱃길'을 지나면 쌍계사로 건너가는 다리가 보인다. 여기서 10km정도 계곡의 물길 따라 가다가 범왕리를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면 칠불사(七佛寺)가 나온다. 지리산 반야봉 동남쪽 해발 800m 고지에 자리잡은 칠불사는 가락국의 태조요,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金首露王)의 일곱 왕자가 와서 수도한 후 모두 성불한 성지로 전해진다.

이날 칠불사에 모인 일행은 다음카페의 불교동호회 '구도역정(cafe.daum.net/kudooyukjung)'의 회원 10명. 하루 전 지리산 무영암에서 모임을 가진 회원들은 이날 칠불사로 넘어와 마침 동석한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과 송도근 전 건교부불자회 회장 내외 등과 함께 우리 시대의 대강백(大講伯)인 칠불사 회주 통광(通光) 스님을 뵈고 즉석 법문을 듣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통광 스님께 일제히 절을 한 뒤, 건교부 공무원인 이상호 가사가 카페를 소개하자 스님은 전국 각지에서 온 불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자연스럽게 법의 문을 여신다.

"불교는 인과론을 말하지만, 숙명론은 아닙니다. 금생에 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생각에 도심(道心)을 발하고 수도해서 오도(悟道)하면 업의 몸이 바뀌어 혁명성성(革凡成聖) 범부의 탈을 벗고 성인이 됩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할 팔자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부자로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선요>에서는 한 생각을 일으켜 현현한 관문을 뚫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돈제망념 오무소득(頓除妄念 悟無所得: 단박에 망념을 제하고 무소득을 깨닫는 것)'한 돈오 단수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 성불하는 것입니다. 보통 업은 사주·관상으로 나타내는데,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은 업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주나 관상으로는 잘 알지 않습니다."

법문의 서두를 마친 통광 스님이 차를 권하자, 불자들이 금강증 보따리를 풀어낸다.

"재가자들은 생활 속에서 공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대해종고 선사는 '서툰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서툰게 하라'고 했어요. 배우지 않아도 아는 다생(多生)의 습성은 연불과 참선 등 수행을 통해 서툰게 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법문은 공부를 해서 익숙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불에 잘 타지

만, 물에 담긴 나무는 잘 타지도 않을뿐더러 불마져 꺼뜨립니다. 물에 젖은 나무는 말려서 불을 붙여야 켜집니다. 인생이 성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고 <열반경>에서 밝히고 있지만, 공부가 잘 안되는 것은 업력 때문입니다. 이럴 때 참회와 기도와 더불어 경전과 조사어록을 공부하고, 수행을 통해 번뇌에 찌든 마음을 맑고 밝히면 선지식의 말 한 마디에 언하대오(言下大悟)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서툰 반야지혜를 익숙하게 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서툰 것을 익숙하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망상일 것입니다. 화두나 진언, 주력을 할 때도 망상은 일

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망상 부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렸을 때 그 망상을 없애려 하는 것도 망상입니다. 업력을 놓쳐 망념이 들 때 번득 쟁기면 망념이 '홍로상 일점설(紅爐上 一點雪: 빨갛게 달아온 화로 위에 눈을 조금 뿌린 상태)'이 되어 사라집니다.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주 해나가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과 경계가 사라지고 본래의 천연(天然)한 자리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견성입니다."

또 다른 불자가 재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흔히 부딪치는 경계의 하나를 예로 들어 질문한다.

"스트레스와 번뇌·망상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도를 닦는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

는 것일까요?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느냐, 참나를 깨달을 것인가, 물질과 정신을 함께 돌보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연전가 무비 스님이 '요즘 선지식 중에 옹타 스님이 최고'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옹타 스님은 '~구나, ~겠지, ~감사'라는 3대 보살을 자주 말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편이 새벽에 집에 들어올 때 '오늘은 늦게 들어오구나, 이유가 있겠지, 늦게라도 들어오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면 성질이 나다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퍼뜩 성내지 말고 '구나보살, 겐지보살, 감사보살'을 통해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보조 스님은 <절요>에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살피는 것이 더딜까 두려워 하라'고 했습니다. 본참공안(本參公案)을 하거나 주력이나 염불을 할 때 망념이 들어올 때 퍼뜩 살피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져 근분과 통하게 됩니다. 방화작(放下着: 집착을 내려놓음)을 통해 바로 본래면목을 오입(悟入: 깨달아 들어감)하는 것입니다."

통광 스님은 생활 속의 마음공부를 설명하면서 좀더 깊이 공부하는 재가 수행자를 위해 자상한 보충 설명을 곁들인다.

"목조선은 묵묵히 살피는 수행이지만, 간화선은 대신근, 대본심을 바탕으로 한 큰 의정(疑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두 공부는 무엇보다 화두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큰 믿음을 바탕으로 분발심을 내어 정진해서 화두에 대한 의정이 풀릴 문치면 동정일어, 풍중일어, 오매일어로 나아가 일념을 이루고 견성오도 하여 마침내 구경각(究竟覺)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경각이라 함은 제8아뢰야식의 미세망념까지 떨어져 나간 경지입니다. 대해종고 선사는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하나로 풀릴 문치 마침내 화두를 타파하면 일체 의심이 다 없어진다고

生死, 생사가 본래 없는 자리에 계합해 견성오도한 계무생사(契無生死)가 그것입니다. 부처님 열반 후 가섭 존자가 뒤늦게 도착해 인사를 올리자 관박으로 발을 내미셨다는 관시쌍부(觀示雙趺)나, 달마 대사가 입적 후 직신을 둘러메고 인도로 돌아갔다가 하는 일들이 계무생사의 경지라 볼 수 있습니다. 생주이멸(生住異滅)하고 성주괴공(成住壞空)하는 세상에서 불생불멸 하는 본래면목을 체득해야 조건성이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어서 두 번, 세 번씩 깨웠다의 기록이 전해져오는 것입니다."

통광 스님은 법문을 청한 이들이 인터넷 불교동호회인 절을 감안, 우리 시대에 맞는 화두 공부법에 대해서도 친절한 주석을 덧붙인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송나라 때의 화두가 통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똑 같은 게 있습니다. 견문각지(見聞覺知: 보고 듣고 감각하고 아는 것) 하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이 뭐고?' 화두를 많이 합니다만,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이 뭐냐?' '견문각지하게끔 하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백 선사는 '견문각지하게끔 하는 자체, 그 당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 일으켜 그 당처를 찾으려 하면 바로 어긋나서 멀어지고 맙니다. 이를 동념즉주(動念即滯)라고 합니다.

화두를 집착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주의 본체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의문이 모두 화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바로 화두입니다. '무엇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듣는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은 더 줄여서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했지요.

우리는 꿈속에서 꿈을 이야기하지만, 꿈속에서는

인과론은 숙명론 아냐... 업 바꿀 수 있다는 뜻 공부는 서툰 반야지혜를 익숙하게 하는 과정

했지요. 물론 화두 공부시의 의심은 경전과 어록, 생활 속의 의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화두를 생령처럼 여겨서 천 길 봉우리에서 돌을 던졌을 때 저 밑바닥까지 주욱 연결될 때 깨침이 온다고 <선요>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주일, 한 달은커녕 세 시간, 30분만 몰아쳐 봐도 일념이 되기가 어려움을 알 것입니다."

진지한 구도자들의 눈빛에 통광 스님은 더욱 세밀하게 공부단계를 설명한다.

"돈오점수를 말씀하신 보조 스님은 공부의 경계를 네 단계로 말씀하셨어요. 경전과 조사어록의 법문을 통해 '나고 죽음이 본래 없음'을 이해한 지무생사(契無生死), 생사가 본래 없음을 체득한 계무생사(契無

꿈밖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녘에 꿈을 깨려고 애를 써야 깨듯이, 꿈인 줄 알아야 언젠가는 꿈을 깨게 됩니다. 생사라는 큰 꿈을 깬 후 석가모니 부처님은 녹야원에서부터 49년간 설법하셨지만, 한 마디로 한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꿈을 깬 근원자리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 불자가 일부 수행자들이 마음의 소소영영(惛惛靈靈) 맑고 신령스러운 당체를 힌두교의 아트만(atman)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한다. 이에 스님은 인터넷은 표정으로 답을 한다.

"돈황본 <육조단경>에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수공예 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능은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밀납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탱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 아랑 연꽃 양초 7.0 f × 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 f × 18cm	③ 약복 1호 그림 양초 5.9 f × 18cm
④ 약복 아랑 연꽃 양초 7.0 f × 33cm	⑤ 밀납 PC접 초 5.5 f × 4cm(연시간 약 8시간)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 f × 18cm

① 밀납초 90cm × 90cm
② 밀납초 1호 4.7 f × 25cm
③ 밀납초 2호 4.7 f × 13cm
④ 밀납초 3호 4.7 f × 13cm
⑤ 밀납초 3호 반야상경 4.7 f × 13cm
⑥ 밀납초 3호 전사제반야상경, 연화

⑦ 밀납초 1호 7.0 f × 34cm
⑧ 밀납초 2호 5.9 f × 18cm
⑨ 밀납초 4호 4.7 f × 10cm
⑩ 밀납초 2호 반야상경 5.9 f × 14cm
⑪ 밀납초 1호 반야상경 5.9 f × 18cm
⑫ 밀납초 연화 한봉 전사제반야상경, 연화(쌍봉)

⑬ 밀납초 돈타테 5.6 f × 27cm
⑭ 밀납초 2호 5.9 f × 14cm
⑮ 밀납초 4호 반야상경 4.7 f × 10cm
⑯ 밀납초 1호 반야상경 5.9 f × 18cm
⑰ 밀납초 연화 한봉 전사제반야상경, 연화(쌍봉)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요은 헌불상 / 02)2004-8216
문의 053-01-389862 (주)현대불교신문사